



2023.02.11(토) 16시

2023년도 체육시민연대 정기총회 개최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6호

지역사회에서 스포츠의 역할

지방도시에 스포츠는 무엇인가?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연구소장

공정거래위원회

체육시설 가격표시 1년...15%는 여전히 '가격정보 없음'

임광복, 이창훈 파이낸셜뉴스 기자

“연금받고 귀화 결심은 오해”

빅토르 안 “러 귀화 결정뒤 받은 체육연금 전액 기부”

임보미 동아일보 기자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역대 최대 규모로 오늘 개막

문성대 뉴시스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비대면 스포츠코칭 시장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모집

최형규 MBN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과 스포츠워싱

“사우디의 WC 후원? 기괴하다”...女 ‘슈퍼스타’의 분노

최용재 마이데일리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지방도시에 스포츠는 무엇인가?



최근 경상남도는 물의도 자주 일으키고 성적도 잘 내지 못하는 경남FC 구단에 정한 기한 내에 1부 리그에 오르지 못하면 팀 매각과 K3리그로 강제 강등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014년 경남FC가 2부 리그로 강등됐을 때 "팀 해체를 고려하겠다"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밝힌 지 8년여 만에 다시 팀 존폐를 저울질하는 발언이 고위 공직자 입에서 나왔다.

문득 중고등학교에 다녔던 20세기 정서가 확 올라왔다. 공부 못하면 사람 대우도 잘 안 해주던 시대, 문제라도 일으키면 잘라낼 생각부터 하던 학교 같다 할까.

경남도청에 축구단은 무엇인가? 2부 리그에서 뛰면 남사스러운가? 누구한테 남사스러운가? 현재 2부 리그에 속한 부산, 전남, 성남 등 다른 열두 개 팀들은, 그럼 루저들인가?

말로는 도민 여론을 보고 판단하겠단다. 되짚어 보자. 경남FC를 만든 주체는 경남도청이 아니다. 2002년 월드컵 마지막 경기였던 터키전에서 붉은악마가 선보인 카드섹션 'CU@K리그'를 보고 감동한 경남 축구팬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펼치면서 김혁규 지사의 경남도를 압박했지만 '돈이 없다'며 거절당했다. 팬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방선거에 화력을 집중했다. 도지사 후보들이 공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2006년 경남FC가 출범했다. 경남FC를 만든 주역은 그냥 경남도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남 '축구팬'들이다. 이번 발표가 있기 전 도는 경남 축구팬들 의견을 얼마나 들었나?

넷플릭스에 <죽어도 선덜랜드>라는 스포츠 다큐멘터리가 있다. 영국 2부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꿈꾸는 선덜랜드 구단이 그 과정을 영상에 담고 싶었는데, 승격은커녕 오히려 3부 리그로 추락했다. 경남도 같았으면 다큐멘터리 제작을 백지화하고 찍은 영상 또한 폐기했겠지만, 이 작품은 고스란히 전파를 탔고, 오히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축구 못하는 자기 팀을 보며 시민들은 화내고 슬퍼했지만, 그렇다고 팀을 버리지는 않는다. 팀이 선덜랜드이고, 그 팀을 응원하는 자가 바로 선덜랜드 시민이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경남FC를 만든 팬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선수는 다른 팀에 임대되기도 하고 이적하기도 하며 나이 들거나 부상당하면 은퇴를 한다. 하지만 팬은? 이적도 못하고 은퇴도 없다. 팬에게 팀은 숙명이자 정체성이다. 그런데 고작 성적이 안 나온다고, 직원 몇몇이 사고 쳤다는 이유로 팀을 없애겠다고?

일본 축구 J리그는 무려 '100년 구상'을 제시했다. 슬로건은 '스포츠로 좀 더 행복한 나라로'다. J리그는 '지방도시'를 주목한다. 야구가 대도시의 스포츠라면 축구는 지방 중소도시의 스포츠다. 그들의 100년 구상에는 세 가지 비전이 있다. '동네에 넓은 잔디밭과 스포츠 시설을 만들겠다',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클럽을 만들게 지원하겠다', '스포츠로 세대 간 경계를 허물고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J리그 팀들이 지방 도시에 연고를 두는 목적은 성적이 아니다. 청년이 떠나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에 스포츠로 자부심과 활력을 제공하겠다는 '포부'가 있다. 일본 지자체들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축구팀을 유치하려고 기꺼이 세금을 쓴다. 지방소멸의 핵심 대안으로 100년을 보고 투자하는 거다. 다시 묻는다. 경남도청 당신들에게 스포츠는 무엇인가?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연구소장

체육시설 가격표시 1년... 15%는 여전히 '가격정보 없음'

공정거래위원회는 1003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 조사 및 계도 결과 156개 업체가 미이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현장의 15.6%는 표시제를 따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26일까지 전국 3500개 체육시설업 사업장에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계도 기간을 거쳤고, 계도 기간 이후에는 오프라인 1003개 및 온라인 40개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장의 자율 준수를 유도해 왔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 간의 이행 여부 점검 결과, 조사 대상 1003개 업체 중 847개(84.4%)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지키고 있었고, 156개(15.6%) 업체는 여전히 정확한 가격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미이행 업체에 사업장 안에 서비스 가격, 내용 및 환불 기준 등 표시대상 중요 정보의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실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중요정보를 표시 및 광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 1억원, 종업원 등 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대상을 전년 대비 2배(1000개 → 2000개) 넓히는 한편,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체육시설을 탐색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표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중기과제로 과태료 부과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헬스장,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의 이용이 증가하는 반면, 조사대상 업체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위의 인력만으로 표시·광고의무 준수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장 관리·감독의 일선에 있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점검 및 시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직접 부과 권한을 갖고, 사업자에게 공정위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전달함으로써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해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격표시제 준수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소비자 대상 홍보캠페인도 전개해 시장의 자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빅토르 안 “러 귀화 결정뒤 받은 체육연금 전액 기부

빅토르 안(38·안현수·사진)이 러시아 귀화 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기력향상연구연금(체육연금)을 모두 기부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시작된 건 빅토르 안이 지난달 성남시청 빙상부 지도자 공개 채용에 응시한 다음이었다. 한국빙상지도자연맹은 “빅토르 안은 귀화 당시 매국 논란이 일자 ‘이중국적이 가능할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귀화 직전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간 사실이 추후 드러났다”면서 “이중국적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간 뒤 몰랐던 척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빅토르 안은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답변드리지 못한 이유는 채용 과정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자칫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발표가 난 후 말씀을 드리려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연금 수령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빅토르 안은 “2011년 6월 러시아로 출국했고 향후 훈련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호주와 러시아 이중국적자인 타티아나 보를로리나(39)가 러시아 대표로 활동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래서 이중국적이 가능할 줄 알고 알아본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난 그 선수처럼 특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고민 끝에 7월에 귀화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귀화 결정 후 수령한 일시금은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돼 심장 수술이 필요한 아이와 재활 및 치료가 필요한 운동선수 후배에게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빅토르 안은 “그런데 귀화 진행 소식이 8월 러시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연금을 먼저 수령한 뒤 귀화를 결정한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귀화가 알려진 건 8월이지만 7월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역대 최대 규모로 오늘 개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가 주최하며, 종목별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이하 장애인동계체전)'가 10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쇼트트랙의 7개 종목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25명(선수 475명, 임원·관계자 55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개회식은 10일 오후 4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등이 참석해 각 시도 선수단을 격려한다.

2026년 밀라노 동계패럴림픽 대비 선수 발굴을 위해 컬링 휠체어 2인조 경기, 알파인스키 슈퍼대회전이 신설됐다.

2004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장애인하계체전과 더불어 국내 장애인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2026년 밀라노 동계패럴림픽 운영 종목에 맞춰 컬링 휠체어 2인조 경기와 알파인스키 슈퍼대회전 부문을 신설해 선수를 발굴하고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설상 경기는 평창군과 횡성군, 빙상 경기는 강릉시, 춘천시에서 진행된다.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경기 일정과 경기장 위치 등 상세한 정보는 장애인체전 공식 누리집(<http://winter.koreanp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회 관련 이야기와 뉴스는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kosad_blog)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비대면 스포츠코칭 시장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모집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함께 오는 24일까지 비대면 스포츠코칭 시장 창출 지원 사업을 운영할 전문기관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문기관은 1개소로, 위탁 사업자로 선정되면 스포츠 강사 및 관련 업종 종사자의 디지털 코칭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스포츠코칭 융합인력 양성 교육(1,000명)과 민간체육시설업체의 홍보, 고객 관리, 비용 절감 및 사업 전환 분야에 대한 디지털화를 돕기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515개 업체)을 운영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비대면 스포츠 및 디지털 전환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 인프라가 갖추어진 대학, 법인, 단체 등입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24일 오후 3시까지며, 참가 방법은 e나라도움(gosims.go.kr)에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을 동시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현재 이사장은 “공단은 2020년부터 스포츠코칭 신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스포츠코칭 시장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스포츠 시장의 전문 인력 창출과 체육시설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운영 기관 선정 후 융합 인력 양성 교육에 수강할 교육생과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체육시설 업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의 WC 후원? 기괴하다” 女 ‘슈퍼스타’의 분노

2023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을 앞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이 2023년 여자월드컵의 공식 후원사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국가, 특히 여성 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독재국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자월드컵을 후원한다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도하는 '스포츠워싱'의 일환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스포츠워싱을 앞세워 2030 남자월드컵 개최를 노리고 있다. 개최국 호주와 뉴질랜드 축구협회는 물론 선수들 역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여자 축구의 '슈퍼스타' 알렉스 모건(샌디에고)도 나섰다.

그는 세계 최강 미국의 간판 공격수이며 미국 대표팀에서 무려 201경기에 출전해 120골을 넣었다. 2015년, 2019년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고, 2012 올림픽 금메달도 목에 걸었다.

모건은 영국의 'BBC'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행태에 "기괴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상한 일이다. 도덕적으로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불과 몇 년 전에 결성된 여자 대표팀에 힘을 쏟는 것이다. 그들은 출전한 경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FIFA 랭킹에도 없다.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이다. 나는 진심으로 FIFA가 옳은 일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축구연맹 역시 "미국 축구는 모두를 위한 인권과 평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우리는 스포츠가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힘을 믿는다. 우리는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올해 테니스 국내 30개·국제 41개 대회 열린다... 생활체육 69개 대회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3021119212460928>

"생활체육 저변 확대"...괴산군, 체육시설 6개 건립

<https://www.news1.kr/articles/4951522>

보은군,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http://news.tf.co.kr/read/national/1998319.htm>

적중금 및 환불금 1년 안에 찾아가야...미수령 시 체육진흥기금에 귀속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98624?ref=naver>

대한하키협회, 국군체육부대 男 하키팀에 지원금 2000만 원 전달

<http://www.stoo.com/article.php?aid=85399749809>

강남에 39개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구로엔 20개 뿐

<https://www.nocutnews.co.kr/news/5894149>

제주도, 4월 개막 '제57회 도민체육대회' 준비 돌입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21>

강원도, 스포츠클럽 육성...생활체육 활성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03296&ref=A>

바흐 IOC위원장, "러시아 선수 출전에서 우리가 역사의 편에 서있어"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12_0002189929&clD=10101&pID=10100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